**부활과 밀알이신 그리스도**

**1/20 월**

**요 16:13-15**  
**13** 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,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,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 
**14** 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,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 
**15** 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‘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.’라고 말한 것입니다.

**요 14:17** 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.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,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,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

**요 15:26** 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,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,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.

**요일 2:27** 여러분으로 말하면,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,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.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,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.

**1/21 화**

**민 17:8** 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,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었다. 심지어 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.

**마 19:26** 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. “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,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.”

**요 11:25** 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,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,

**고후 3:5-6**  
**5** 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,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.  
**6** 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.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,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.

**빌 1:20-21**  
**20** 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,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,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.  
**21** 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,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.

**벧전 5:5** 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,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.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,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.

**1/22 수**

**고후 1:8-9**  
**8** 형제님들,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,  
**9** 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

**갈 1:15-16**  
**15** 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 
**16** 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,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,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,

**갈 2:20**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

**갈 4:19** 나의 자녀인 여러분,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.

**고후 4:7** 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.

**1/23 목**

**고후 4:16** 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.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,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

**골 2:19** 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.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,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.

**고후 3:16, 18**  
**16** 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,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.  
**18** 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.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.

**애 3:22-23**  
**22** 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.  
**23** 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.

**시 68:19-20**  
**19** 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더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.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네. 셀라  
**20** 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호와 주님께 있다네.

**1/24 금**

1. **요 12:23-24**  
   **23** 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.  
   **24** 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,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.
2. **요 14:16-18**  
   **16** 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,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.  
   **17** 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.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,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,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 
   **18** 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.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.
3. **롬 8:28-30**  
   **28** 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,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.  
   **29** 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 
   **30** 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,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,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.
4. **1/25 토**
5. **요 14:23** 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. “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.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,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.
6. **요 15:5** 나는 포도나무요,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,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.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7. **요 16:20-21**  
   **20** 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여러분은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, 여러분은 슬퍼하겠으나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.  
   **21** 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,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, 어린아이를 낳으면,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.
8. **엡 2:15-16**  
   **15** 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.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,  
   **16** 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
9. **골 3:10-11**  
   **10** 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.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  
   **11** 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, 할례자와 무할례자나, 야만인이나, 스구디아인이나, 노예나, 자유인이 없습니다.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.
10. **1/26 주일**
11. **시 90:1-2, 8-12, 14-15**  
    **1** 오, 주님! 주님은 대대로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.  
    **2** 산들이 생기기 전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.  
    **8** 주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, 저희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으므로  
    **9** 저희의 일생이 주님의 넘치는 진노 가운데 지나가고 저희의 연수가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.  
    **10** 저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나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덧없이 흘러가니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.  
    **11** 누가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, 누가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 따라 주님의 넘치는 진노를 알겠습니까?  
    **12** 그러니 저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.  
    **14** 아침에 주님의 자애로 저희를 만족시키시어 저희가 일생 환호하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.  
    **15** 주님께서 저희에게 고통을 주신 날수만큼, 저희가 재앙을 당한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.